

## Sector Comment

## K-POP Rise &amp; Release

2026.01.14

장지혜 엔터·미디어·음식료 02-709-2336 / jihye.j@ds-sec.co.kr, 강태호 연구원 02-709-2666

## K-pop R&amp;R. #BTSComeback2026 #왕의귀환

*K-pop R&R은 K-pop 아티스트의 활동 성과 및 업종 내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자료입니다.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의 성과(Rise)와 음반/투어 일정 공개 소식(Release)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.*

■ BTS(방탄소년단)는 26년 3월 20일 신보 발매 후 4월 9일부터 월드 투어 진행. 역대 K-Pop 최대 규모

- BTS는 26년 3월 20일(금) 오후 1시에 정규 5집 발매 예정. 3년 9개월만에 팀으로 선보이는 완전체 신보
- 신보에는 총 14개 곡이 수록되며 '가장 방탄소년단 다운' 음악으로 일곱 멤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제시할 것
- BTS의 컴백 소식 후 22년 6월 발매한 앤솔러지 앨범 수록곡 <달려라 방탄> 61개국 아이튠즈 1위로 역주행
- BTS의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는 1/13 기준 2,499만명(+4% MoM)으로 상승, 팔로워 수는 8,197만명
- 또한 BTS는 앨범 발매 후 월드 투어 진행 예정. 22년 <PERMISSION TO DANCE ON STAGE> 이후 4년 만
- 1/14 공개된 월드 투어 일정은 26년 4월-27년 3월까지 23개국가 34개 도시 79회(26년 70회, 27년 9회) 예정
- 권역별로는 미주(북미+남미) 39회, 유럽 10회, 아시아/호주 30회. 27년 일본과 중동 등 추가 일정 공개될 전망
- 스타디움 투어로 회당 모객 수 5.5만명으로 가정하면 총 모객 수는 450만명 수준. 역대 K-Pop 최대 규모

■ 하이브는 메가 IP BTS 복귀에 따른 차별적 실적 성장 전망. 고연차, 저연차, 해외 IP 성장의 3박자 긍정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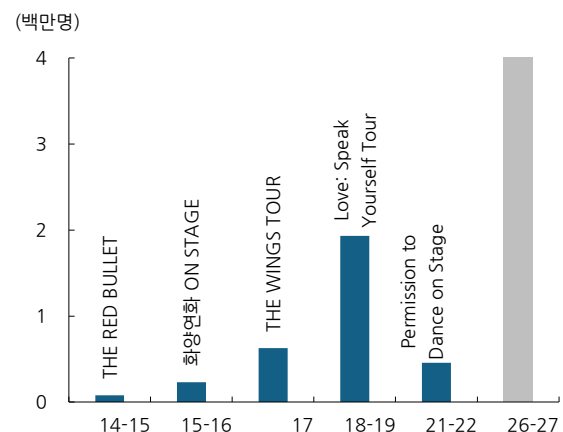
- 하이브는 26년 1분기 BTS의 신보 발매, 2분기부터 월드 투어 실적 인식되며 업종 내 차별적 실적 성장 시현 전망
- 이외에도 국내 코르티스, 해외 KATSEYE와 같은 저연차 IP 성장과 고연차 IP 활동 이어지며 IP 레버리지 확대
- 최근 엔터 업종 주가는 4분기 실적 하향과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혼조세. 업종 최선호주 하이브 유지

그림1 BTS 월드 투어(26-27) 일정 공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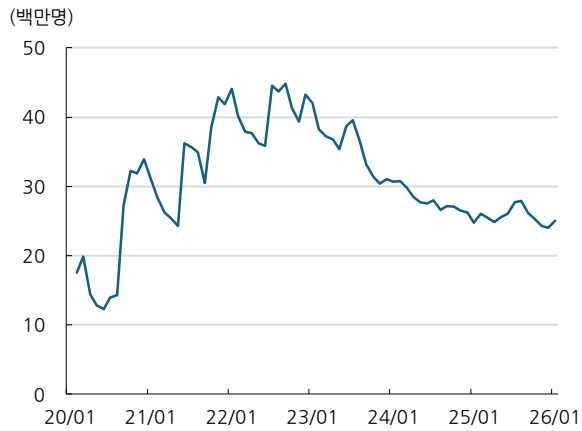
자료: 하이브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BTS 공연 모객수 추이 및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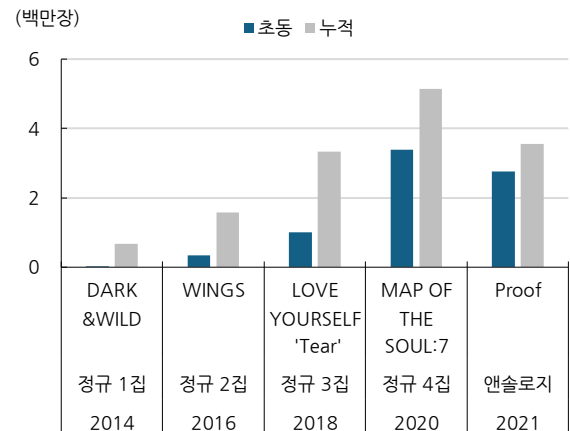
자료: 언론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하이브 스포티파이 월간청취자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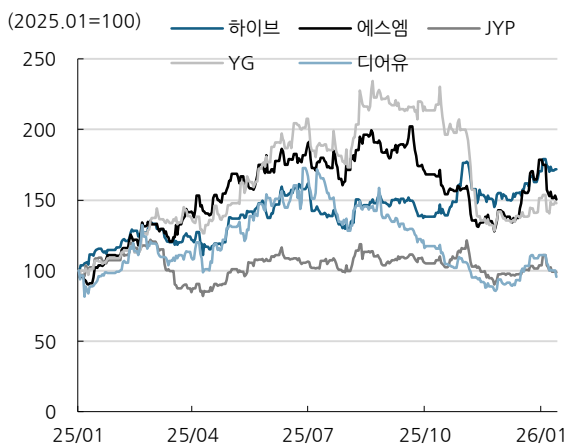
자료: Spotify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BTS 정규 앨범 판매량 추이(국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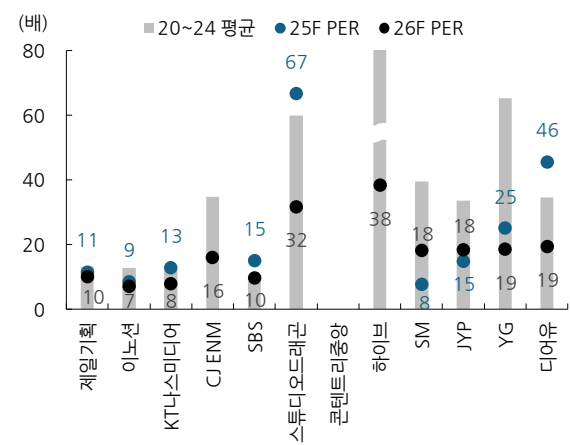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터차트, 씨클차트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5 주요 엔터 기업 주가 추이



자료: FnGuide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미디어-엔터 PER 밸류에이션 비교



자료: FnGuide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## 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